

I

경영환경

- 2022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됨
 -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4.4%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021년 2/4분기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세계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가 지속됨
-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하였으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국내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위축으로 2022년 국내경제는 2.7~2.8%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와 수출은 2021년 4/4분기에 비해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는 부진이 심화됨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4%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됨에 따라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에서 2.25%로 0.75%p 인상함
 -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며 하락세로 전환됨
 - 7월 말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전월 말 대비 하락한 3.00%, 3.13%를 기록하였으며 장기물 중심의 하락세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빠르게 축소됨
- 2022년 1/4분기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에서 현금 및 예금, 국내외 주식 거래금액은 2021년 4/4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2년 1/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3%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1년 1/4분기에 기록한 최저치 13.2%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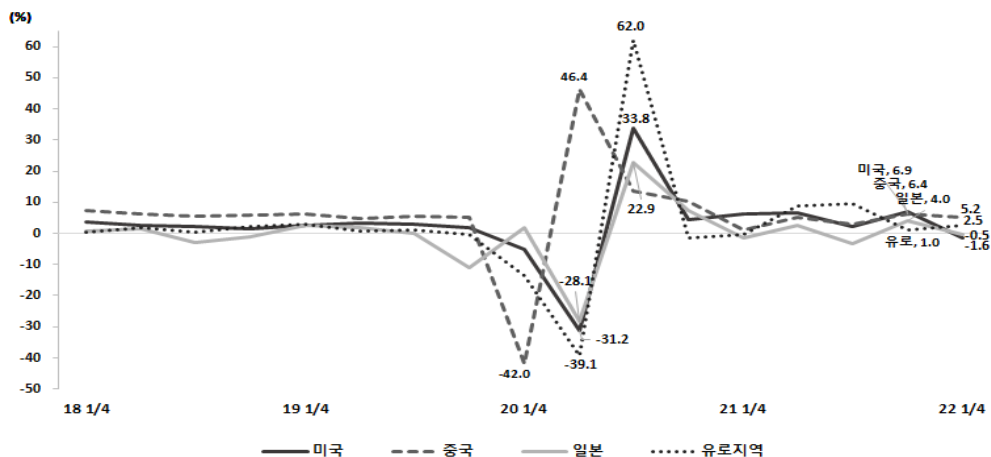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2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국가별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통화정책에 따라 상이한 성장경로를 보임

- 2022년 1/4분기 미국 경제는 설비 및 지식생산물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 코로나19 관련 정부 경기부양 지출 감소, 재고 투자 속도 둔화 영향으로 역성장(-1.6%)함¹⁾
- 중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더불어 2022년 1/4분기 5.2% 성장하며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4/4분기 대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
- 일본은 1/4분기 수출과 정부지출이 확대된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방역정책 강화로 가계소비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0.5%)함²⁾
- 유로지역은 1/4분기 가계소비와 정부지출이 감소했으나, 수출과 고정자본형성 등이 증가하여³⁾ 전분기 대비 2.5% 성장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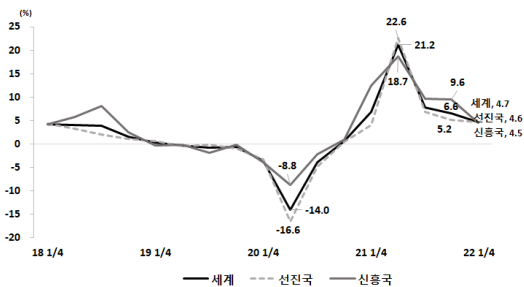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6); 중국 국가통계국(2022. 4); 일본 내각부(2022. 6); Eurostat(2022. 7)

- 1)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2. 6),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GDP by Industry, and Corporate Profits (Revised), First Quarter 2022"; WSJ(2022. 4), "U.S. GDP Falls 1.4% as Economy Shrinks for First Time Since Early in Pandemic"
- 2)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2022. 6), "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Jan.-Mar. 2022 (The Second preliminary Estimates)"
- 3) Eurostat(2022. 6),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2"

○ 2022년 1/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4.4%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021년 2/4분기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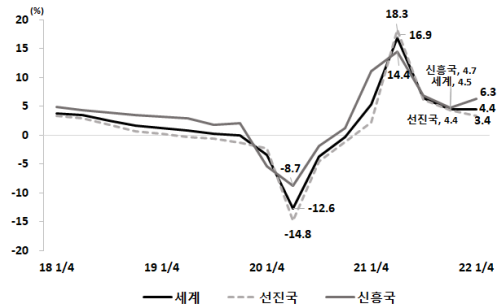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 증가율은 각각 4.6%, 4.5%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확대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6)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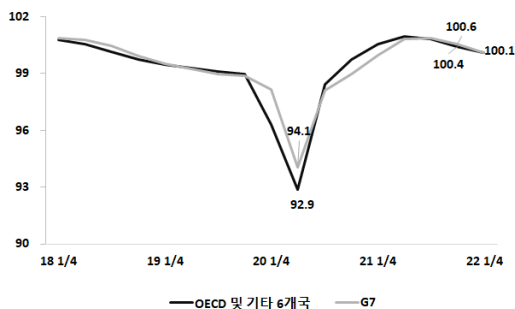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022. 6)

○ 2022년 1/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⁴⁾는 2021년 4/4분기 대비 0.3p 하락한 100.1을 기록하였고,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도 모두 하락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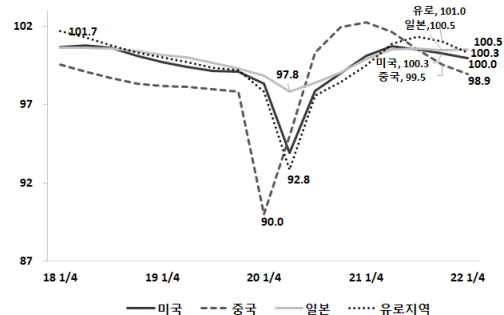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5p 하락하였고, 미국과 유로지역은 전분기 대비 각각 0.3p, 0.7p 하락한 100.0, 100.3, 일본은 전분기와 동일한 100.5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98.9로 기준점 100을 하회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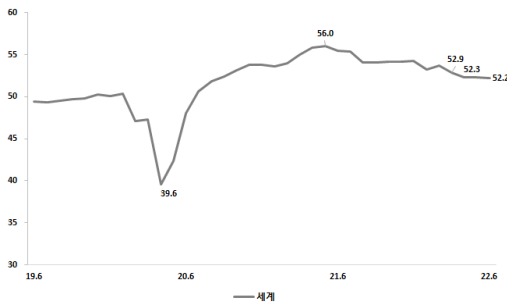
자료: OECD

4)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⁵⁾는 2021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6월 52.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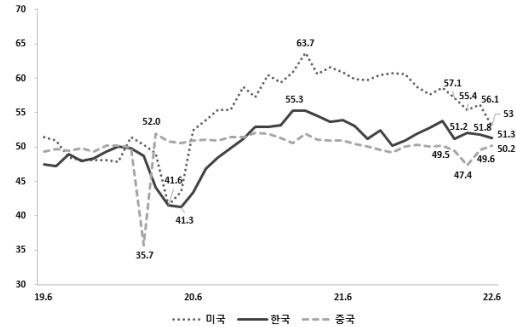
- 2022년 6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대비 4.1p 낮은 53.0을 기록하였고 한국 제조업 PMI는 51.3으로 3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중국 PMI 지수는 4개월 만에 50선을 상회함

〈그림 6〉 세계 제조업 PMI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7〉 주요국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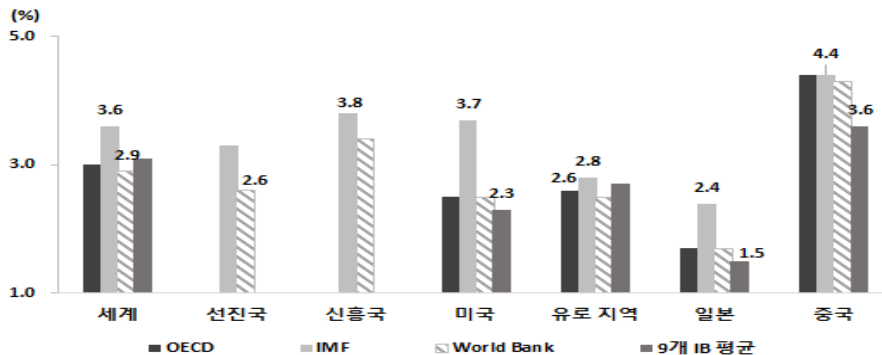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봉쇄 등으로 세계 경제침체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고, 그 결과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최저 2.9%에서 최고 3.6%로 전망됨

- OECD는 2022년 6월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및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를 반영하여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치 대비 1.5%p 하향 조정함⁶⁾

〈그림 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는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임
 자료: IMF(2022. 4); OECD(2022. 6); World Bank(2022. 6); 9개 IB 평균(2022. 6)

5)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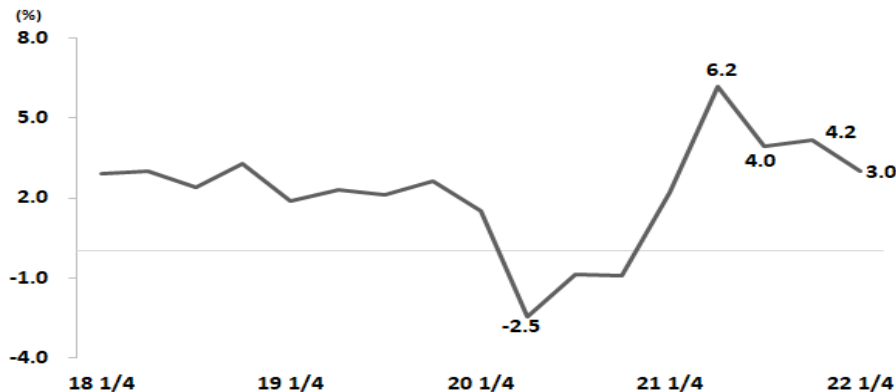
6) OECD(2022. 6), "The Price of War"

나. 국내경제

○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하였으나, 2021년에 비해 경제회복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임

- 2022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2021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됨
 - 소매판매는 2022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021년 4/4분기 대비 3.6%p 축소됨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부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2년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103.6으로 전분기 대비 2.4p 하락함
- 2022년 1/4분기 지식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설비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건설투자는 부진이 심화됨⁷⁾
 -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확대된 반면, 설비투자는 2월과 3월 자동차 운송장비 및 특수산업용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 축소되었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1년 4/4분기 -1.6%에서 2022년 1/4분기 -5.5%로 감소폭이 확대됨
 - 2022년 1/4분기 기계수주는 6.2% 증가했으나 전분기(35.8%) 대비 증가율이 큰 폭 감소하였고, 건설수주는 1월 실적이 크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함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고, 수입은 5.3% 확대됨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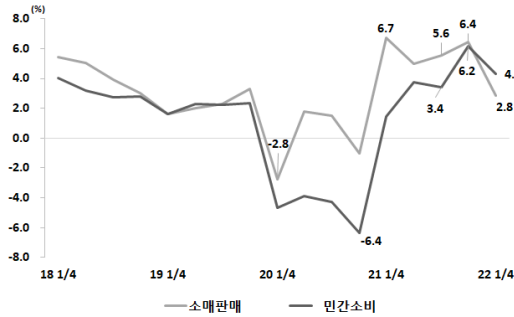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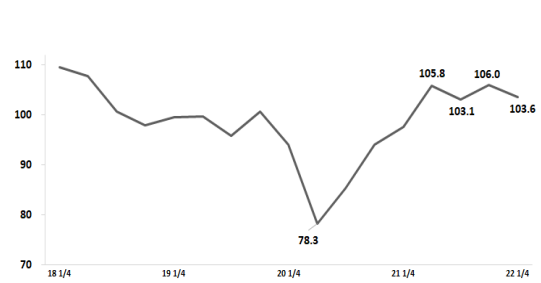
7) 통계청 보도자료(2022. 3), “2022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2. 4),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2. 5),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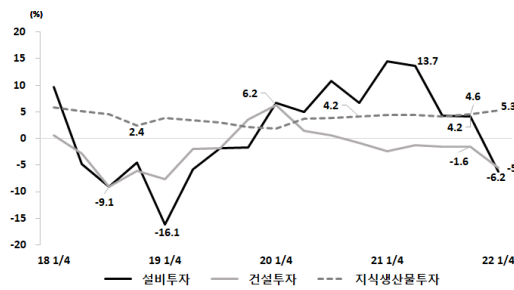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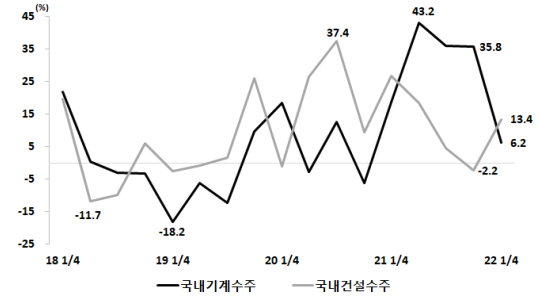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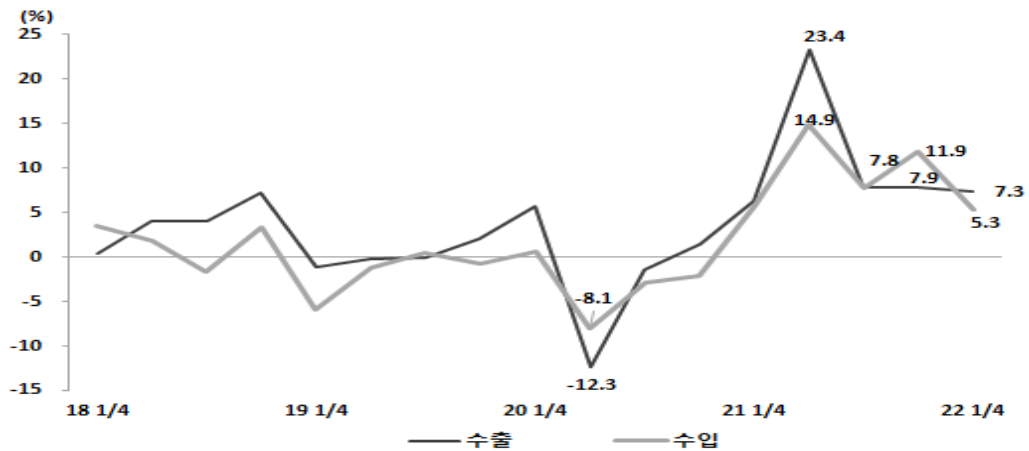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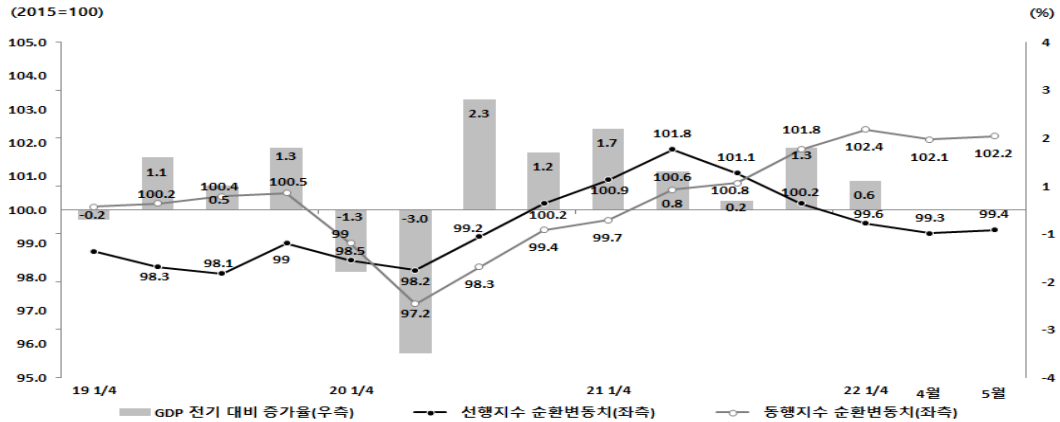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1/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4/4분기 대비 0.6p 하락한 99.6,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6p 상승한 102.4를 나타냄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2/4분기 하락세로 전환된 후 2022년 초부터 5월까지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였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지속한 후 2022년 5월 소폭 하락하여 102.2를 기록함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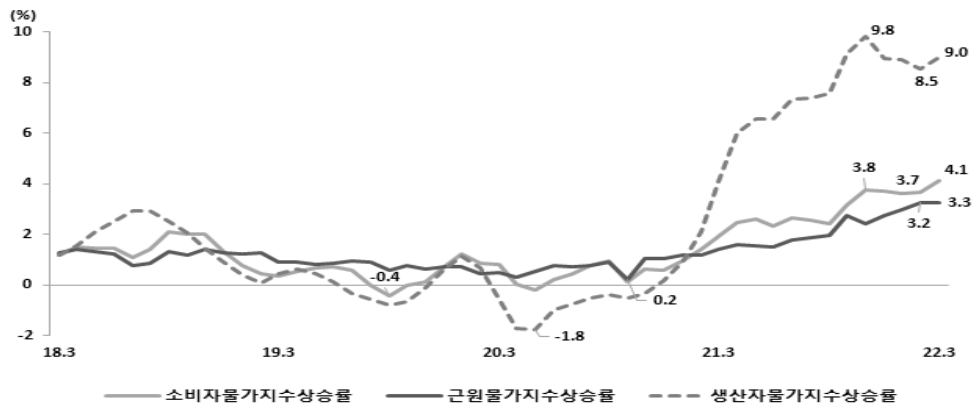


주: 2022년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와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2021년 11월 기록한 10년 이래 최대 상승률 3.8%보다 0.3%p 확대된 4.1%를 기록함⁸⁾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지수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8) 기획재정부(2022. 2; 2022. 3; 2022. 4),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위축으로 2022년 국내 경제성장 속도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2년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대외적 하방요인을 고려하여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7%, 2.8%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⁹⁾은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2.0%(Nomura)에서 최고 2.8%(Barclays), 평균 2.4%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¹⁾		2023(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0.9	4.0	2.7	2.8	2.4	2.3
민간소비	-5.0	3.6	3.7	3.7	2.7	3.9
설비투자	7.1	8.3	-1.5	-4.0	2.1	2.4
건설투자	-0.4	-1.5	-0.5	-1.3	2.6	2.3
지식생산물투자	4.0	3.9	4.0	4.6	3.7	3.4
상품수출	-0.5	9.8	3.3	4.3	2.1	2.5
상품수입	-0.1	11.9	3.4	4.2	2.4	2.8
실업률	4.0	3.7	3.1	3.1	3.5	3.3
소비자물가	0.5	2.5	4.5	4.2	2.9	2.2
경상수지	759	883	500	516	540	602
상품수지	806	762	510	442	620	65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7	121	-10	74	-80	-48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2.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2. 5), 『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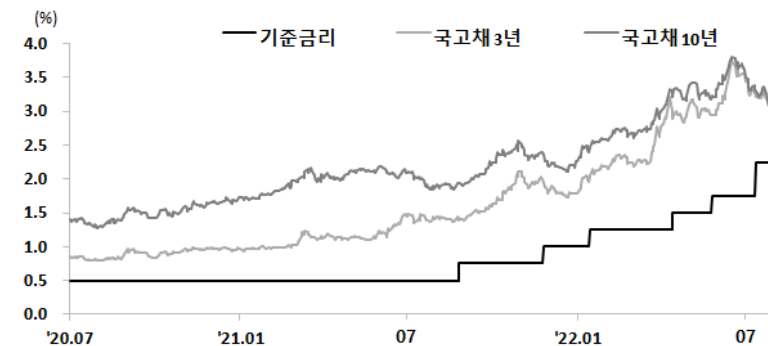
9)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2년 6월 말 기준임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됨에 따라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에서 2.25%로 0.75%p 인상함¹⁰⁾
 - 금융통화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세와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 개선으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며 하락세로 전환됨
 -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6월 말 각각 3.55%, 3.62%에서 7월 말 3.00%, 3.13%로 하락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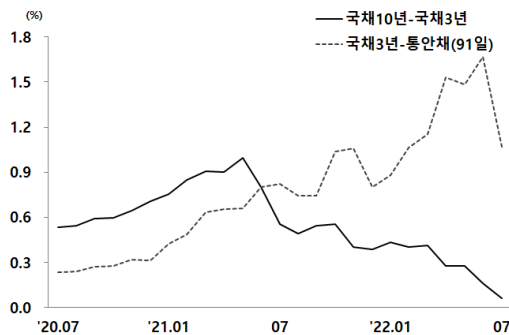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높은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빠르게 축소되고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됨
 -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 물 중심에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빠르게 축소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6월 말 10.3bp에서 7월 말 3.5bp로 축소되며 1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10)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5. 26),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7. 13), “통화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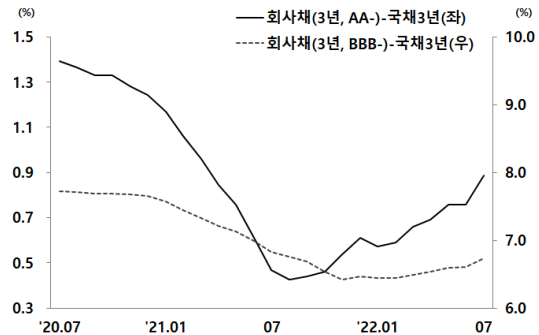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회사채AA-, 국고채 3년물)는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어 6월 78.6bp에서 7월 88.8bp로 확대됨
 - 7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발행규모는 6조 4,00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 감소함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통화 긴축 스탠스 등의 영향으로 단기 물 중심의 상승세를 보임

-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에 이어 5월(0.50%p), 6월(0.75%p), 7월(0.75%p) 총 세 차례 걸쳐 0.5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됨
 - 미 연준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¹¹⁾을 단행하였으며,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1%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 기대로 상승세를 보이다 경기둔화 우려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급등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 형상이 확대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2년물)는 7월 중 -25bp까지 확대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3/4분기 한국의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

- 2022년 3/4분기 한국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각각 3.35%, 3.46%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0.53%p, 0.47%p 상향 조정되었고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3.30%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59%p 상향 조정됨

11)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 0.75%p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2. 3Q	4Q	'23. 1Q	'22. 3Q	4Q	'23. 1Q	'22. 3Q	4Q	'23. 1Q
3.30	3.30	3.29	3.46	3.42	3.37	3.35	3.37	3.31

주: 2022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8월 초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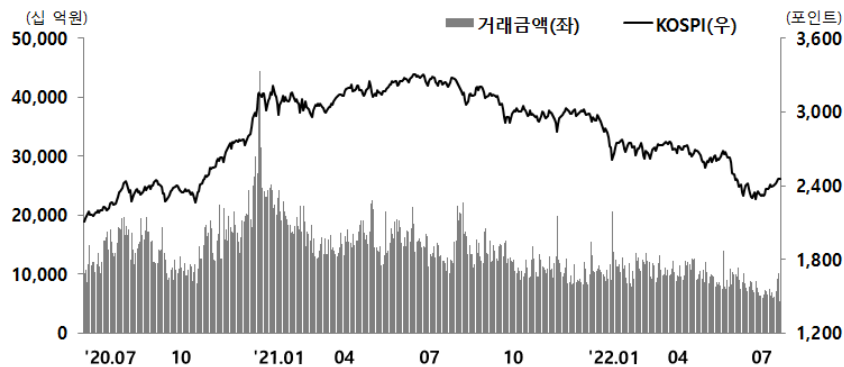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통화 긴축 스탠스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국내 주식거래 위축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함

- 5월 코스피 지수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스탠스 강화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투자심리가 확대되며 5월 말 2,686포인트에서 6월 말 2,333포인트까지 하락함
- 7월에는 높은 생산자물가로 인한 기업 이익 축소 및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한 소비 개선 둔화가 우려되었으나 2개월 만에 외국인 순매수세로 전환되며 전월 말 대비 소폭 상승한 2,452포인트로 마감함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원/달러 환율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자금 환전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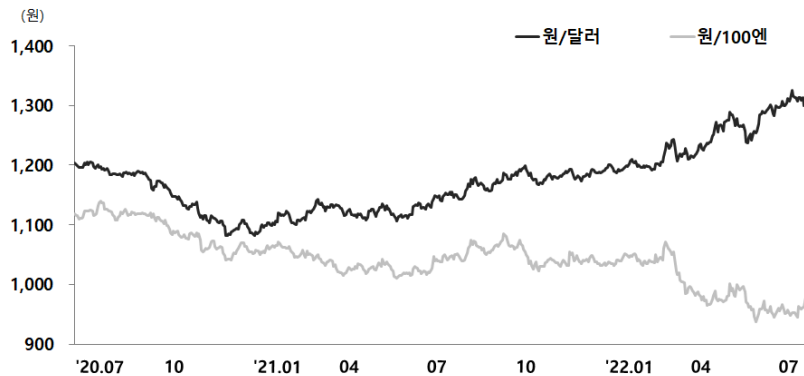
- 5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단계적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전월 말 대비 소폭 하락한 1,237원으로 마감
- 이후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강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및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반영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5개월 연속 순유출되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299원에서 7월 중 1,317원까지 상승함

○ 원/엔 환율은 일본의 해외 여행객 입국 허용에 따른 내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차별화 지속,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무역수지 적자로 하락세를 지속함

- 6월부터 외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 허용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 회복이 기대되나 미 연준의 빅 스텝 인상으로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부각되며 100엔당 원/엔 환율은 전월 말 대비 소폭 하락한 968원을 기록함
-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 여파로 무역수지가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미·일 간 금리 차이 확대가 전망되며 7월 중 100엔당 원/엔 환율은 946원까지 하락함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3/4분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달러/유로 환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 스탠스와 중국의 완화정책 기대감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2. 2Q	3Q	'22. 2Q	3Q	'22. 2Q	3Q
Wells Fargo	1,299	1,310	136	138	1.04	1.00
Mizuho Bank		1,320		137		1.07
Morgan Stanley		1,330		141		0.97
JPMorgan Chase		1,270		138		1.00

주: 2022년 2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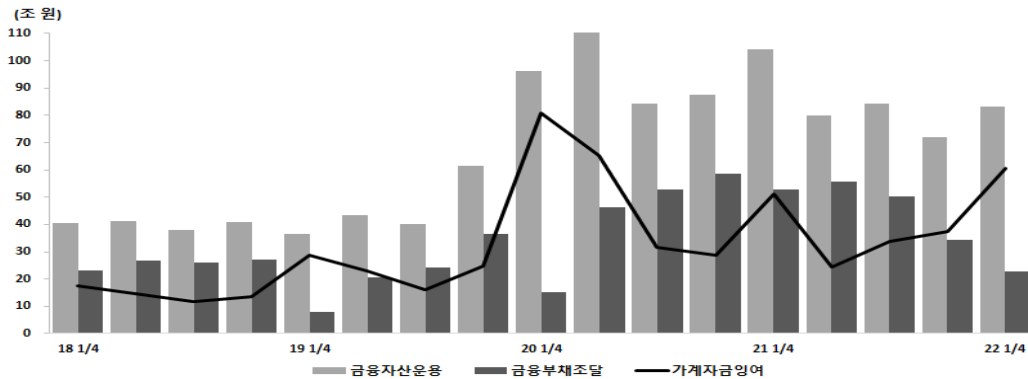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3. 자금흐름

○ 2022년 1/4분기 가계부문¹²⁾ 자금잉여¹³⁾는 60.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23조 원 증가함

- 금융자산운용은 전기 대비 12.1조 원 증가하여 83.2조 원을 기록한 반면, 금융부채조달은 22.7조 원으로 전기 대비 15.7조 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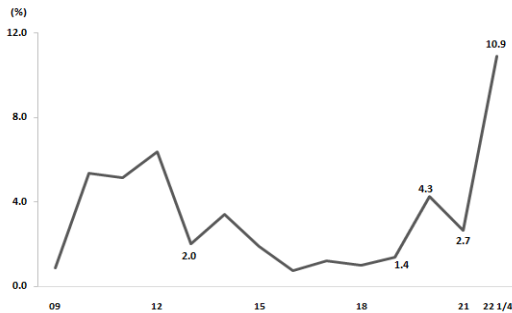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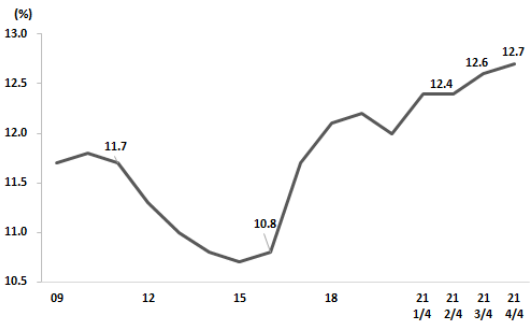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9% 확대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고, 2021년 4/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7%로 2021년 상승세가 지속됨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그림 24〉 DSR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BIS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12)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3)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2022년 1/4분기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에서 현금 및 예금, 국내외 주식 거래금액은 2021년 4/4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2년 1/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3%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1년 1/4분기 기록한 최저치 13.2%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임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181.6
2020	188.3	71.1	(18.7)	8.4	75.3	20.6	-6.6	379.3
2021	173.7	70.2	(20.6)	-29.7	90.1	22.8	5.8	340.3
2021 4/4	51.7	31.2	(43.4)	-16.2	-4.1	5.2	3.0	72.0
2022 1/4	63.5	11.9	(14.3)	-10.6	7.7	8.3	1.8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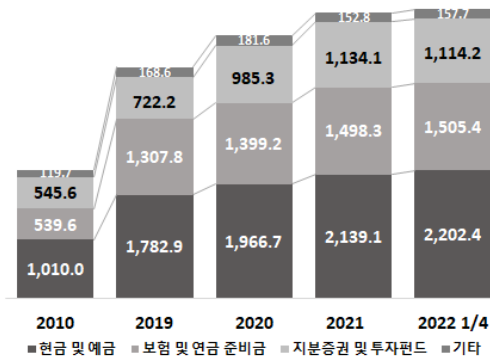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2년 1/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 비중은 30.2%로 2021년보다 0.2%p 하락함

- 2022년 1/4분기 가계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2021년보다 0.8%p 증가한 44.2%를 차지하였고, 자본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2021년보다 0.6%p 감소한 22.4%임

〈그림 25〉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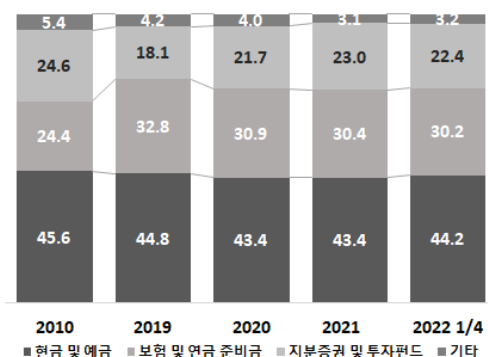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4. 규제·제도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4건)(2022. 6. 9 금융위원회)

- 보험 부문에서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정기간을 2022년 5월 27일에서 2024년 5월 26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함

○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예고(2022. 4. 27 금융감독원)

- 그간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①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권 선정기준, ②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③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 이에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임

○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적용(2022. 5. 1)(2022. 4. 27 금융감독원)

-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되었으나 10인승 이하로 튜닝 시 승용차로(2019년 1월),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를 허용(2020년 2월)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따라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 의결(2022. 4. 13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엠지손해보험(주)(이하, “엠지손보”라 함)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음
-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만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하였으며,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2022. 4. 13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주)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으며,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22년 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